충남기계공고 동문회보(월간)

**총동문회 지표**

- ❖ 참여하는 동문회
- ❖ 협력하는 동문회
- ❖ 모교돕는 동문회


# 설송소식

2021년 10월 제260호 http://cnmhs.net

창간 : 1999년 3월 31일 발행인 : 강신열 편집인 : 이우정 인쇄인 : 한흥교 사무처 : (042)252-5656 팩스 : (042)584-5658 E-mail:2525656@hanmail.net

# "연회비·발전기금 모금 매우 부진, 운영에 비상 걸렸다"

## 지난해 비해 턱도 없이 부족, 긴급 비상대책 세워야 할 판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충기총동문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월에 열리는 제32회총동문체육대회 등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설송소식 259호(9월호) 기사를 보고 일부 동문들의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에 비해 발전기금 모금이 매우 부진하여 여전히 비상이다. 이에 따라 긴급 비상대책을 세워야 할 판이다.

지난 9월에 발전기금 납부가 부진한데 이어 10월에도 일부 동문과 단체에서 발전기금을 보내 왔으나 반응이 적어 속수무책이다.

9월 25일 이후 이달 25일까지 개인으로는 박대용 전 총동문회장이 100만원, 이원승 전 총동문회장이 30만원, 김흥년 동문(5회) 30만원, 김창길 동문(10회)이 50만원, 오응수 총동문회 고문(1회)이 20만원, 마수용 동문(18회)이 30만원을 보내오고, 단체에서는 천안동문회와 22회 동문회가 각각 50만원씩을 보내왔다. 올 9월, 10월의 발전기금 납부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못 미치고 있어 동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형편이다.

이재범 총동문회 감사(8회. 대전과학대학 겸임교수)는 "동문 한 분, 한 분의 작은 정성이 모여 큰 힘이 된다"며 "개미군단이지만 작은 정성이 자랑스런 충기인의 역사를 만들어 온 만큼, 힘들고 어렵더라도 십시일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모교에서 열려 전국의 기술인들이 자웅을 겨뤘다. 사진은 운동장의 주차장 모습.

충남기계공고를 졸업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동문이 많이 존재하는 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총동문회사무실 문은 닫히지 않을 것이고, 월간으로 발행되는 설송소식도 계속 나올 것이라고 믿는다. 인간의 역사에서 보듯이 상승세가 있으면 하락세도 있고 비상시국도 있다. 코로나시대의 한파를 당당히 넘어서서 따뜻한 봄날을 맞이하기를 동문 모두의 정성을 모아 기도해 본다. 당당한 공고 출신 충기인임을 부끄럽지 않게 여겨야 진정한 동문이다. 송주영 1회 선배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동문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는가를 묻기 보다는, 내가 동문회를 위해 무엇을 해주었느냐를 생각하는 동문이 되자"는 말씀이 생각나는 요즈음이다.

– 신도성 편집위원 –

##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 무사히 개최 축하합니다"

모교 등 대전지역 7개 경기장에서 열린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10월 4일부터 11일까지 8일 간 무사히 개최됨을 축하합니다. 모교는 제2경기장을 운영하여 CNC/밀링, 배관, 기계설계/CAD, 용접, CNC/선반, 산업제어, 산업용로봇, 판금철골구조물, 주조, 귀금속공예, 보석가공 등의 경기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사전 PCR검사, 방역게이트 설치 등 철저한 방역시스템 구축을 통해 대회기간 중 단 한명의 확진자 발생 없이 안전한 대회를 치렀습니다. 운영요원을 맡은 모교 직원들과 학생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관련기사 2, 3, 6면〉

# “제56회 대전전국기능경기대회 모교 등 7개 경기장서 개최”

## 53개 직종 기능한국 뽐내, 대전시 선수단 금 1개, 은 3개, 동 3개 획득

전국기능경기대회 중 정문에서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

코로나검사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정문을 통과할 수 있다.

선전을 기원하는 각 학교 현수막이 모교 담장을 둘러싸고 있다.

대전에서 열린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모교 등 대전지역 7개 경기장에서 10월 4일부터 11일까지 8일 간 개최됐다. 전국 17개 시도 대표선수 1,828명이 출전하여 모바일로보틱스 등 53개 직종에서 자웅을 겨룬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사전 PCR검사, 방역게이트 설치 등 철저한 방역시스템 구축을 통해 대회기간 중 단 한 명의 확진자 발생 없이 안전한 대회를 치렀다.

모교는 제2경기장을 운영하여 CNC/밀링, 배관, 기계설계/CAD, 용접, CNC/선반, 산업제어, 산업용 로봇, 판금철골구조물, 주조, 귀금속공예, 보석가공 등의 경기가 열전을 펼쳤다. 직종별 입상 선수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상 등 상장과 부상으로 금메달 1천만 원, 은메달 600만 원, 동메달 4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되며, 2024년 프랑스 리옹에서 열리는 제47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와 산업기사 실기시험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11일 오전 엑스포시민광장 야외무대에서 진행된 폐회식에서는 대회 우수 선수 2명에게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묵묵히 후진양성을 위해 애쓴 지도교사에게는 모범지도자 표창을 수여했다. 특히 숙련기술의 단절이 우려되는 가운데 대전에서 석공예 분야 기술인의 맥을 이어가는 숙련기술명문가(산막석재)에 대한 시상도 있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대전시 선수단은 금메달 1개, 은메달 3개, 동메달 4개, 우수상 4개, 장려상 24개를 수상했다. 금메달은 주조 직종 ㈜성진테크놀로지 최현철, 은메달은 귀금속공예 직종 충남기계공고 박경태, 공업전자기기 직종 동아마이스터고 강민재, 요리 직종 팬쿠킹아카데미 이규재 선수가 수상했다. 동메달은 전자기기 직종 동아마이스터고 정영호, 타일 직종 대전교도소 문경식, 화훼장식 직종 성남소재 이현정, 헤어디자인 직종 루디아헤어디자인아카데미 김윤주 선수가 수상했다. 2022년 제57회 전국기능경기대회는 경상남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모교에서는 이종업 교장을 중심으로 직원들이 원만한 대회 운영을 위해 정성을 기울였고, 모교 내에 위치한 총동문회 사무실에는 송예경 총무가 출근하여 자리를 지켰다. 대회 기간 중 모교 안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은 코로나 검사를 대회 전과 대회 도중 두 번 받아 음성임을 확인해야 했다. 대전에서 세 번째 열리는 전국기능경기대회가 무사히 끝나 다행이다.

– 신도성 편집위원 –

설동호 교육감이 모교 이종업 교장의 안내를 받고 있다.

# “대한민국 기술인재로 성장 기대”

##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모교 경기장 방문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10월 5일(화) 전국기능경기대회 경기장인 모교를 방문하여 대회 주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대회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관계자들을 격려했다.

2021 대전광역시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는 고용노동부,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주최하고,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대전광역시기능경기위원회가 주관하는 대회다.

올해는 “대한민국 허브 대전, 기술로 세계의 중심이 되다”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됐는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었고, 모든 관련 행사는 대회 홈페이지(http://전국기능경기대회.com/)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중계됐다.

이번 대회에 대전교육청 특성화고등학교 소속의 학생선수는 25개 직종 66명이 참가하였는데,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10월 5일 모교를 방문하여 이종업 교장의 안내로 대회장을 둘러본 후 코로나19에 대비하여 안전한 대회 운영과 방역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학교경기장 관계자에게 당부하였고, “참가선수들을 직접 만날 수는 없어서 안타깝지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한 학생들이 자신의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대한민국의 기술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를 제보해주세요”**

**각 회수나 단체동문회 소식과 개인동정을 알려주시면 정성껏 게재하겠습니다.**

**총동문회편집실 ☎(042)252-5656**

#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제품으로 대한민국 기술 세계에 알린다”

## 모교 경기장에서 열린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 CNC/밀링경기 현장 중계

대전에서 열린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전국의 기능인들이 열전을 펼쳤다. 모교에서 벌어진 CNC/밀링경기의 모습을 권오진 동문(31회. 영동하이텍 대표)이 사진으로 담았다. 권오진 동문은 CNC/밀링경기 부심사장으로 심사위원을 맡아 대회 8일 동안 수고했다. <편집자 주>

경기장 내부

심사위원들 경기직전 파이팅

출전 전 몸풀기

선수 파악

주의 사항 전달

실전 돌입

심사

순위 결정

# “더불어 잘 사는 새마을운동 정신 이어받아 지역주민에 봉사”

## 차정운(20회) 새마을운동유성구지회장, 진춘식(21회) 새마을운동중구지회장

진춘식 동문이 새마을회원들과 동네에서 소독작업을 하고 있다.

세계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된 새마을운동

코로나로 인해 활동이 뜸한 요즘 관변 단체인 새마을운동 유성구지회장 차정운 동문(20회)과 새마을운동 대전중구지회장 진춘식 동문(21회)이 지역주민에게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새마을운동 대전중구지회는 진춘식 회장의 리드아래 지난해부터 중구 관내 12개동 취약지역에서 코로나19 방역활동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봉사활동을 찾아 실천하고 있다.

유성구새마을회(회장 차정운)는 산하 새마을협의회·부녀회·문고 회원 160명을 상대로 온라인으로 실시한 새마을운동 기초과정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과 더불어 이른바 ‘3대 관변단체’로 불린다. 중앙 조직부터 동단위 조직까지 합쳐 정부의 사회단체보조금만 한 해 350억 원을 지원받는다. 이 보조금은 각 단체 고유의 사업비로 주로 사용하도록 돼 있다. 사업은 대부분 거리 청소와 각종 계도활동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이다.

새마을 운동은 1970년 초 대한민국 농촌의 현대화를 위해 시작되어 박정희 정부 주도로 시행된 운동이다. 새마을 운동은 풀뿌리 지역사회 개발운동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새마을 운동 계획자는 당시 양찬우 전 경남도지사이다.

이 운동은 박정희 정부에 의해 1969년 새마을 운동으로 명명되었고, 전국적으로 시행 1975년에는 도시와 공장으로도 확대되었다. 1973년부터 새마을운동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전국민적 운동으로 확산시켰다. 새마을 운동은 근면·자조·협동을 기본 정신으로 한다. 새마을 운동은 농촌의 근대화,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의식개혁을 그 목표로 하였다. 새마을 운동은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켰고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공동체 의식, 자발적 참여 의식 회복에 기여하였다. 세계적으로는 농촌 개발의 모델로서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획기적인 정책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유엔은 새마을 운동을 바탕으로 한 ‘새천년마을계획’이라는 아프리카의 빈곤퇴치 프로그램을 추진할 만큼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또한 아프리카의 유엔 산하기관에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배워볼 것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현재 해외 74개국으로 새마을 운동이 수출되었고, 후진국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배우겠다며 방한하는 해외지도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탄자니아는 2012년까지 팡가웨 지역에 새마을 운동을 기반한 마을을 건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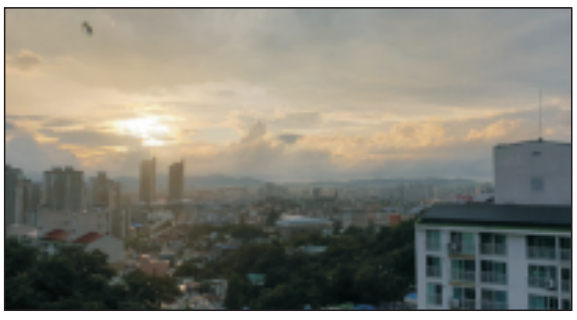
새마을운동기록물은 2013년 6월 18일 광주에서 열린 ’제11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에서 난중일기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결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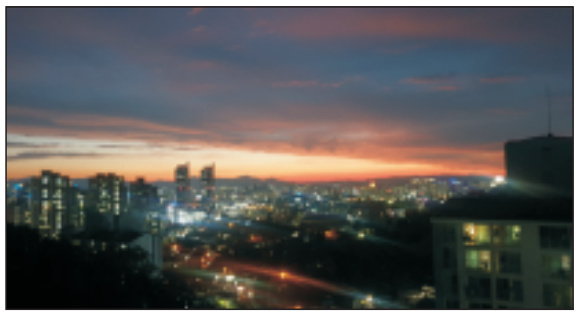
진춘식 동문은 “새마을운동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정도로 지구촌 식구들에게 인정받고 있다”며 “일부 부정적인 시선도 있지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이웃주민이 모두 잘 사는 쾌적한 마을 가꾸기 차원에서 긍지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 신도성 편집위원 –

# “아침, 점심, 해질녘, 심야, 그리고 겨울 인생살이와 같다”

## 〈사진뉴스〉 대전대 인근 용방마을아파트에서 바라본 대전시내 전경

대전대 인근 용방마을아파트에 사는 김희곤 편집위원(16회)은 퇴근 후나 주말에 집에 있을 때 대전시내 방향을 보며 힐링하고 있다. 아침부터 저녁 무렵과 심야의 경치가 다 다르다. 그리고 흰 눈이 쌓인 겨울에는 세상이 온통 하얗다. 인생살이와 같은 무상한 풍경을 틈틈이 사진에 담았다. <편집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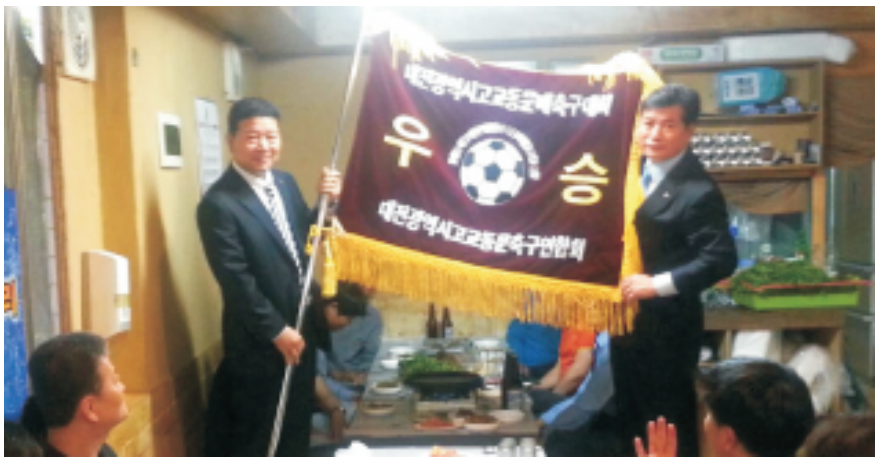




# “방콕 하다보니 체중만 늘어나 축구로 건강 지킵니다”

## 충남기계공고 동문축구단(충기F.C) 코로나 시대에도 활발하게 운동 지속

안영생활체육축구센터에서 경기 후 포즈를 취했다.



우승 후 저녁 회식 석상에서 당시 전종현 총동문회장에게 우승기를 바치고 있다.

충남기계공고 동문축구단(충기F.C)이 코로나 시대에도 매주 운동으로 건강을 챙기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활동이 정지되면서 방콕하다 보니 확찐자(체중 급증)가 늘어 중년의 나이가 든 사람들은 걱정이 많은 형편이다.

동문들의 소모임 동아리인 충기산악회, 설송마라톤동문회 등이 거의 휴면상태에 있는데 비해 충기F.C는 방역 4단계가 발령되는 경우를 제외해놓고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매주 토요일 오후(하계 4시, 동계 2시) 모교 운동장에서 공을 찬다.

충기F.C는 올해 방역관계로 뒤늦게 무사안전기원제를 1월이 아닌 3월 13일 모교 운동장에서 회원과 동문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바 있다. 이후 10월 현재까지 꾸준히 축구를 즐기고 있다. 최근에는 모교에서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열리고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작업으로 당분간 안영생활체육축구센터에서 운동하고 있다.

충기F.C는 2008년 7월 창단하여 현재 정회원 80명과 준회원 20명이 동참하고 있다. 충기F.C는 대전광역시 고교동문축구연합회 주관대회에서 2011년, 2012년, 2014년, 2015년, 2017년까지 5차례나 우승하는 등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충기F.C는 동문 선,후배 충기F.C 회원과 가족의 친목을 도모함과 동시에 모교 축구부 및 모교 축구동아리 후원 활동도 겸하고 있다. 임정호(23회) 충기F.C회장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방콕만 하다보면 건강을 지킬 수 없다”며 “세월이 힘든 시절이라도 희망을 갖고 움직이다 보면 언젠가 봄이 온다”며 “관심 있는 동문들이 동참하여 축구로 면역력을 키우고 건강을 지키자”고 말했다.

올해 3월 모교 운동장에서 무사안전기원제를 올리는 모습.

– 신도성 편집위원 –

칼럼

# “입찬소리 말라, 너도 늙는다”

## 교차로 10월 29일자 아름다운 사회 칼럼

언젠가 중국 여행에서 유명한 사찰을 간적이 있었습니다. 그 절 명부전에는 염라대왕 등 저승세계 열 명의 왕과 문 앞에 무기를 들고 험상궂은 표정을 한 지옥세계 옥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곳에서 중국어한자 글씨가 눈에 띠었습니다. 你也來了(니이에라이러: 너도 왔구나)라는 글이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입찬소리 하며 천년만년 살 것처럼 기고만장하던 사람도 죽어서 별 수 없이 지옥에 옴을 경고하는 말이었습니다.

최근 50대 여자 지인으로부터 “사람들이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너무 막말 한다” 며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얼마 전, 병약한 노모를 집에서 지극정성으로 모시던 그 분은 출렁다리가 개통되어 관광명소가 된 충남 논산 소재 탑정호수로 바람을 쐬러갔습니다. 노모를 휠체어에 앉히고 조심스럽게 출렁다리 입구로 갔는데, 친구로 보이는 60대 초반쯤 되는 세 명의 여자들이 곁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들이 지나가면서 내뱉은 “나 같으면 저렇게 될 때까지 안 산다”고 입찬소리를 하는 것이 귀에 들렸습니다. 순간 가슴을 후벼 파듯이 에려왔고, 자기도 모르게 그 여자를 째려보았습니다. 입찬소리를 했던 그 여자는 순간 움찔하더니 내빼듯이 멀어져 갔습니다.

우리 속담에 “입찬소리는 무덤 앞에 가서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요양원이 없던 시절에 어느 집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편찮으셔서 6~7년 동안 대소변을 받아내며 시중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고생스럽게 모시면서도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 “나는 절대로 나중에 며느리 시중을 안 받겠다”고 호언장담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얄궂게도 그 며느리는 나중에 6~7년 간이나 자신의 며느리로부터 대소변을 받게하는 시중을 받아야 했습니다.

“너의 젊음이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닌 것처럼, 나의 늙음도 내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라는 말은 지금도 많이 회자되고 있는 명언으로, 박범신 소설가가 쓴 ‘은교’ 라는 소설이 영화로 제작되면서 나온 대사입니다. 박범신 작가는 소설에서 “늙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다. 노인은 기형이 아니다. (중략) 따라서 노인의 욕망도 범죄가 아니고 기형도 아니다. 노인은, 그냥 자연일 뿐이다. 젊은 너희가 가진 아름다움이 자연이듯이. 너희의 젊음이 너희의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이라는 인상 깊은 말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고령화사회가 빨리 진행되면서 노인빈곤, 노인질병, 노인고독, 노인자살, 고독사 등 노인과 관련한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젊은이들도 언제까지나 젊은 채로 살아갈 수 없는 만큼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되는 피할 수 없는 운명임을 명심하여 나이 들어 어떻게 살 것이냐를 미리 고민해두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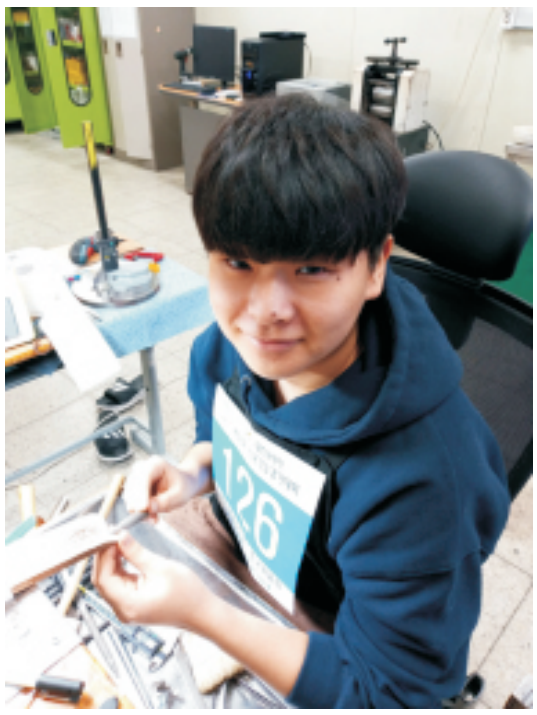
유튜브에 나이 드신 몇 분이 모여 앉아 서유석 가수가 부른 ‘너 늙어봤냐’는 노래를 가지고 개사하여 부른 노래가 인기라고 합니다.

가사 중에 “세상나이 구십 살에 돋보기도 안 쓰고 보청기도 안 낀다. 틀니도 하나 없이 생고기를 씹는다. 누가 내게 지팡이를 손에 쥐게 해서 늙은이 노릇하게 하는가. 세상은 삼십년 간 나를 속였다.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 봤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라는 내용이 인상적입니다.

사는 날까지 곱게 늙어 가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어제는 역사요, 내일은 미스테리이며, 오늘은 선물이다”라는 말처럼, 오늘 두 다리로 건강하게 땅을 밟고 다니는 것이 기적이라고 여기고, 매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후적>

# “세계기능올림픽 2개 금메달 등 효자종목으로 꾸준한 실력 인정 ”

## 박경태 동문(54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귀금속공예 은메달 획득



은메달을 따낸 박경태 동문

박경태 동문이 귀금속공예직종에서 은메달을 수상하고 있다

박경태(2019년, 54회 졸업) 동문이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귀금속공예 직종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번 대회는 10월 4일부터 11일까지 대전에서 기능인들의 기능수준 향상 및 신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직업훈련제도와 방법 등의 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열렸다.

모교 경기장에서 열린 귀금속공예 직종에서 은메달을 따낸 박경태 동문은 “이번 메달 획득의 기쁨과 영광은 식당을 운영하시며 키워주신 부모님께 돌리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상규 지도교사는 “모교기능부후원회(회장: 전종현, 부회장 : 최동준)의 관심과 배려, 그리고 전폭적인 행정과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이종업 교장선생님의 덕분”이라고 말했다. 귀금속 분야는 모교 동문들이 세계기능올림픽에서 2개의 금메달을 비롯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많은 금메달을 모교에 안겨준 효자 종목으로, 최근 2019, 2020년에 이어서 3년 연속 은메달을 획득하여 꾸준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한편 모교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은메달 외에 산업제어 부문 김선재, 이현, 보석가공 김지원, 기계설계/CAD 최준희 학생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모교 선수단은 2022년 경남에서 열릴 대회에는 반드시 금메달을 따내겠다고 다짐했다.

– 정찬목 편집위원(모교 교사.12회) –

# 모교 종합운동장에 무공해 인조잔디공사

## 전국기능경기대회 주차장 사용 후 교체 45일간 공사

모교 종합운동장 인조잔디공사가 10월 중순부터 45일 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모교 축구팀을 비롯하여 학생들의 체육공간으로 활용되었던 운동장 인조잔디는 오래 사용하여 교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고,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모교에서 열림으로 인해 경기장 및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

이번에 새로 깔리는 인조잔디는 기존 제품과 달리 미세 먼지가 날리지 않고 친환경 무공해 로 건강에 이상이 없을 전망이다,

동문들은 “모교의 발전적인 모습에 감사드린다”며 “좋은 운동장이 기대 된다”고 말했다.

동문들은 또한 “학교 건물을 비롯해 운동장까지 훌륭한 시설을 갖춤에 따라 앞으로는 재능이 있고 성실한 학생들을 받아들여 기능 인재를 양성하는 일만 남았다”고 기대했다.

## 수입 현황

기간 : 2021년 9월 29일 ~ 2021년 10월 25일까지
입금계좌번호 : (농협) 351-0214-2218-53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

### 연회비 및 발전기금

| | | | | | | | | | | | | | | |
|---|---|---|---|---|---|---|---|---|---|---|---|---|---|---|
| 광 | 1 | 송구영 | 20,000 | 전 | 9 | 민병준 | 20,000 | 기 | 14 | 이황훈 | 50,000 | 기 | 18 | 김학만 | 100,000 | 금 | 24 | 성관철 | 20,000 |
| 상 | 1 | 오응수 | 200,000 | 자 | 9 | 송영달 | 20,000 | 기 | 14 | 임화섭 | 100,000 | 전 | 18 | 마수용 | 300,000 | 전 | 30 | 배은진 | 20,000 |
| 광 | 3 | 서한수 | 20,000 | 전 | 9 | 오옥균 | 20,000 | 전 | 14 | 조춘택 | 20,000 | 기 | 20 | 김현하 | 20,000 | 전자 | 32 | 장규덕 | 50,000 |
| 자 | 3 | 임태빈 | 100,000 | 광 | 10 | 김화중 | 100,000 | 기 | 14 | 진대영 | 20,000 | 기 | 19 | 배영환 | 20,000 | 기 | 33 | 이재상 | 20,000 |
| 전 | 5 | 김양현 | 50,000 | 기 | 10 | 오풍균 | 50,000 | 기 | 14 | 한경환 | 20,000 | 기 | 20 | 차정운 | 100,000 | 기 | 35 | 김정규 | 20,000 |
| 전 | 5 | 김흥년 | 300,000 | 광 | 10 | 이기성 | 20,000 | 기 | 15 | 원상길 | 50,000 | 기 | 21 | 문길수 | 50,000 | 전자 | 48 | 이동겸 | 20,000 |
| 전 | 5 | 오성균 | 20,000 | 방 | 12 | 조우찬 | 100,000 | 기 | 15 | 이교진 | 20,000 | 기 | 21 | 장명국 | 50,000 | 단체 | | 22회동문회 | 500,000 |
| 광 | 7 | 김광태 | 20,000 | 기 | 13 | 권연호 | 100,000 | 기 | 15 | 이명기 | 50,000 | 기 | 21 | 진춘식 | 100,000 | 단체 | | 천안동문회 | 500,000 |
| 자 | 8 | 권세영 | 20,000 | 기 | 14 | 김교신 | 100,000 | 기 | 16 | 박대용 | 1,000,000 | 기 | 23 | 이동우 | 20,000 | | | | |
| 광 | 8 | 김월배 | 120,000 | 기 | 14 | 김만식 | 50,000 | 배 | 16 | 오한선 | 20,000 | 기 | 23 | 이영규 | 20,000 | | | | |
| 전 | 8 | 류오현 | 100,000 | 기 | 14 | 김종선 | 50,000 | 기 | 16 | 이계천 | 20,000 | 전 | 23 | 권성욱 | 20,000 | | | | |
| 화 | 8 | 이원승 | 300,000 | 기 | 14 | 박기현 | 20,000 | 기 | 16 | 이재흥 | 20,000 | 전 | 23 | 김용현 | 20,000 | | | | |
| 화 | 8 | 이장수 | 100,000 | 기 | 14 | 박천관 | 100,000 | 기 | 16 | 이진구 | 20,000 | 전 | 23 | 김진택 | 20,000 | | | | |
| 전 | 8 | 임헌표 | 50,000 | 기 | 14 | 송수헌 | 50,000 | 전 | 16 | 장보환 | 20,000 | 전 | 23 | 박무종 | 20,000 | | | | |
| 자 | 8 | 정기원 | 20,000 | 기 | 14 | 안병도 | 100,000 | 금 | 17 | 민영삼 | 30,000 | 전 | 23 | 최석희 | 20,000 | | | | |
| 방 | 9 | 김종섭 | 20,000 | 기 | 14 | 이상호 | 50,000 | 기 | 17 | 이훈로 | 100,000 | 전 | 23 | 홍갑표 | 20,000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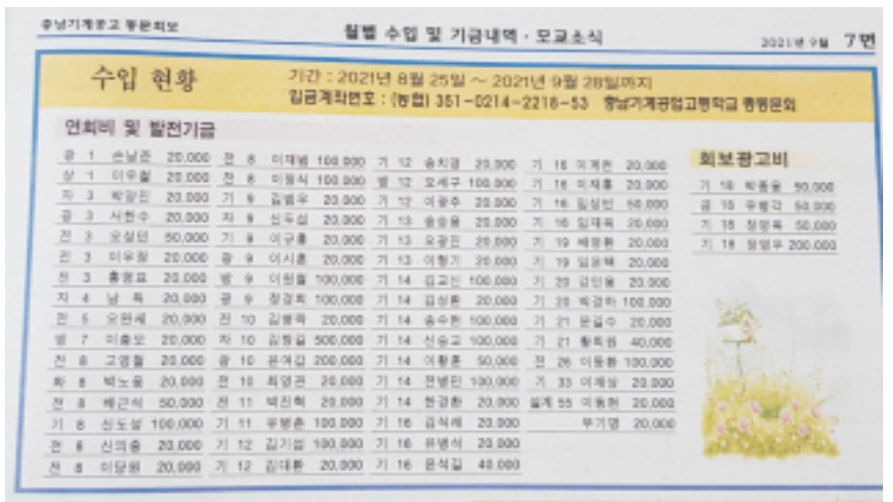
### 회보광고비

| | | | |
|---|---|---|---|
| 기 | 18 | 박종용 | 50,000 |
| 금 | 18 | 유병각 | 50,000 |
| 기 | 18 | 장영옥 | 50,000 |

# "순남준 친구를 찾습니다" 지난달 동문회보에 성금 낸 것 보고 달려와

## 1회 광산과선배님 세 분 총동문회 사무실 찾아와, "지난 2006년까지 연락됐는데"

친구 찾아 동문회를 방문한 이기선. 조남간, 홍남기 선배님들(우로부터)–



지난 달 발행한 259발전기금 현황

동문회보 설송소식 21년 10월호(통산 260호)의 기사를 10월 28일 점심 무렵 막고 금성기획으로 편집차 가려고 하는데, 광산과 1회 이기선, 홍남기, 조남간 선배님이 연락이 끊긴 동기 친구 순남준(학교 졸업 명단엔 손남준) 동문을 찾기 위해 총동문회 사무실을 찾아와, 긴급하게 취재했다.

광산과 1회 모임인 충심회(회장 이기선, 총무 나무찬)는 2000년대 초 까지만 하더라도 전국모임이 잘 열렸고, 지난 2004년 계룡산에서 전국 모임을 가질 때만 해도 50여 명이 성황을 이뤘다. 하지만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연락이 두절되는 친구들이 늘어 현재는 26명의 회원이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시대 이전엔 월 1회 모임을 가졌다.

이기선 충심회 회장은 "동문회를 보고 순남준이 발전기금을 냈다는 소식을 본 친구들이 연락와 동문회로 전화를 수소문 해보았지만 019 번호만 기록되어 안타까웠다"며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내어 이날 총동문회 사무실을 방문했다.

이날 대전에 사는 이기선 회장과 동행한 동문은 충북 옥천 청산면에 거주하는 홍남기 선배님과 경북 경주에서 올라온 조남간 선배님이었다.

홍남기 동문은 "모교 학생시절 순남준, 조남간, 강남선, 홍남기까지 4남이라고 하여 무척 친하게 지냈다"며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수록 추억을 공유한 친구들이 사무치게 보고 싶어진다"고 회상했다.

다행히 순남준 선배님의 전화번호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지로용지로 보낸 주소(충남 아산시 배방읍 거주)가 확인되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총동문회사무실을 방문한 선배 세 분은 "동문회보 설송소식은 우리 동문들의 자랑이다"며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계속 발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이날 홍남기 선배님은 즉석에서 10만원, 경주에서 버스를 타고 올라온 조남간 선배님은 5만원을 발전기금으로 냈다.

– 신도성 편집위원 –

종합정비업
으뜸자동차공업사
자동차검사! 환경심사!
대표 장 영 우 (18회) 010-2304-1500
대전광역시 동구 대성동 276-12번지 (면허시험장)
TEL : (042) 282-1500 FAX : (042) 282-1501 , E-mail : jyu9839@hanmail.net

이름 조가네 갑 하는 오징어

충청지역 동문님들을 체인점 가족으로 모십니다. 기계과(15회) 조현기
명실상부한 한국 최고의 갑오징어 전문 음식점 | 합리적인 가격! 환상적인 맛!
조가네 갑오징어만의 경쟁력
1 본사 OEM 소스 공장에서 직접만든 소스 공급
2 전문적인 주방 기술이 필요없는 시스템
3 유행을 타지않는 독창적인 아이템
4 본사의 가맹사업팀 전문가들의 도움
가맹문의 1800-6084 www.jonlee.co.kr
조가네 갑오징어 대전관평점 ☎042-931-1375

emp (주)이엠피서비스 www.empservice.co.kr
대표 정 구 창 (10회)
H.P 010-5403-8902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13길 25, 에이스하이테크 2차 809호
TEL : 1644-2660, FAX : 02-701-7298
▣공동주택/건물종합관리
▣경비/청소, 정보통신공사
▣면세물류/ 근로자파견

필 엔 텍
FIL & TECH
대 표 진 춘 식 (21회)
010-8823-8548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39번길 36
TEL. (042)626-8548 팩스. 626-8549
홈페이지 : www.filntech.com
CLEAN 장비, 공조용 FILTER 및 각종 산업용 FILTER

박 종 용 세무회계사무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2동 1308번지
하이베라스빌딩 3층
(우)302-830
서대전세무서 앞, 제일은행 옆
세무사 박 종 용 (18회)
TEL : 042-471-6400, 6442
FAX : 042-471-6443
핸드폰 : 010-7680-3377
E-mail : pjy4716400@hanmail.net

페인트도소매
조색시스템
(3분조색OK)
도 장 공 사
분체, 액체
열처리도장
제비표페인트대연상사
제 일 테 크
유 병 각 (18회)
010-6424-723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289-1
산업용재유통단지18동 135,136호
TEL:(042) 670-7877, 7233
FAX:(042) 670-7876

(주)코핸즈 대리점
(주)지에스에이 대리점
(주)에어스타 대리점
콤프레샤 주문배작 및 수리 여러 주변기기 일체
한 국 기 계
대표 장영옥(옥빈,玉賓) 18회
cell : 010-5455-8786
콤프레샤전문 콤프나라 www.compnara.com / www.hkmcomp.com
매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60 산업용재유통단지 18동 138호 / 우. 306-754
Tel. 042 · 670 · 8962, 042 · 623 · 8962 / Fax. 042 · 670 · 8963
E-mail : hkmcomp@hanmail.net
공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60 산업용재유통단지 18동 153호, 154호

누리상조
★ 매월 납입금 없는 후불방식 입니다.
◈기존 상조회사보다 저렴합니다.
대표: 나 익 성 (기 13회)
010-4433-0444

탐라돌구이
윤 여 갑 (10회)

H.P : 010-5454-1262
TEL : 042-823-8888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607-4
♣대형 주차장 완비♣

미르마르커피
대표 조 성 민 (16회)
Hp 010.5402.3132
강릉 안목커피거리
강원도 강릉시 창해로 14번길 22
Tel : 033-653-3130
FAX : 033-653-3132
E-mail : mirmarcoffee@naver.com

※네이버에 한방몰을 검색해보세요.
세계인의 슈퍼푸드 미국판매1위
건강선물! 노니원액
대표 박봉구(23회) HP 010.2415.4477 TEL 1566-7516
물류센터 |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341-10 공장 | 충남 금산군 남일면 봉황로 186
한솔바이오한방(주) 한방몰 www.hanbang-mall.co.kr under4477@hanmail.net

KIA
Movement that inspires
(16회)
김 희 곤(男祈) 한밭대리점/카마스터
34050,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446번길 10 (문지동)
Tel : 042-863-5454 Fax : 0504-466-5838
Mobile : 010-3300-5838
E-mail : kng7587@hanmail.net
A/S센터 : 080-200-2000

금산 왕대양꼬치 GEUMSAN WANG DAE LAMB

대표
권 경 중 (26회)
[32736] 충남 금산군 금산읍 비호로 16
Mobile : 010-3588-4135
예약문의 : 041) 751-2299

세무법인 YEE JEONG 이정
稅務法人 마 수 용 유성지점
대표세무사
마 수 용 (18회) 010-4506-5089
[국세청 서기관, 북대전, 대전세무서 등 28년 근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875 비에스타워 506호 (충남대 서문앞)
Tel 042-719-8898 Fax 042-719-8810
신고대리 기장대리 불복청구 세무조사 양도 상속 증여


## ※동문회 운영에 연회비 납부가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동문회보는 지금까지 개미군단의 십시일반 성금으로 발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를 잇따라 열지 못함에 따라 회보발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동문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1년에 한번 내시는 연회비 2만원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연회비 납부는 동문회 운영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총동문회사무실 대표전화 ☎252-5656

입금계좌번호 : (농협) 351-0214-2218-53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


kt biz 공식파트너
HTM (주)에이치티엠
정기채(기22회) 010-3411-7788
· 기업용 인터넷 기가오피스, 오피스IP, 네트워크보안
· 기업용 전화 인터넷전화, 일반전화, 전국대표번호
· 지능형 CCTV 영상 보안 감시
· 네트워크공사 신규사무실, 사무실이전 네트워크 공사
가입센터 1522-2536
www.happyinternet.kr


## 동문회보 협찬광고 받습니다.

충기동문들이 애독하는 설송소식에 동문 기업의 협찬광고를 저렴하게 게재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총동문회사무실 대표전화 ☎252-5656